

先秦 儒家의 경제적 세계관*

金 東 天

- I. 머리말
- II. 공자의 義利論과 惠民論
- III. 맹자의 仁政論과 用賢사상
- IV. 荀子の 禮治와 富國論
- V. 선진유가의 사회관리사상
- VI. 선진유가의 인사관리사상
- VII. 결어

I. 머리말

고대 중국의 유가사상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다소 복잡하지만 정교한 틀을 갖추게 될 때 까지는 수백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실제로 춘추전국시대까지만 해도 유가사상 역시 百家爭鳴 가운데 하나의 학파에 불과하여 이른바 顯學에는 유가 외에도 묵가, 법가, 도가 등의 서로 다른 학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대에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해외지역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들어 무제의 '獨尊儒術'과 일부 유가 이론에 대한 유학자들의 새로운 해석에 힘입어 유가사상은 역대 봉건 중국왕조의 군주들이 국가의 모든 분야를 관리하는데 있어 지침이 될만한 가장 기본적인 통치 이념이 되었다. 그 후 2000년 동안 그것은 중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인 한국, 일본, 월남 등의 전통적인 사회구조, 정치경제 체제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민족성, 도덕의식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홍콩, 대만과 더불어 이들 주변국들이 전후 수십년 동안 이룩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의 근저에는 이러한 유가사상의 유산이 적지않게 작용했으리라는 견해에 대해 동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금세기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대륙 역시 '개혁개방'이라는 기치아래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를 동시에 수용하는 실험적 개혁을 단행하여 이미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유가사상의 발원지인 중국 대륙에서 이러한 경제적 실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유산이 어떤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적 자원을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전통 유가사상의 경제적 세계관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후대의 모든 유가사상의 근원으로서의 선진유가 특별히 공자, 맹자, 순자의 경제적 세계관을 살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I. 공자의 義利論과 惠民論

중국의 공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통치자들의 전횡과 학정 그리고 제후국 사이의 전쟁이 점차 증가하여 天子 중심의 봉건 영주제도가 해체될 국면에 놓인 시대였다. 그에게서 비롯된 유가학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정치적으로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제후들간의 다툼이 종식되고 西周의 봉건 영주제도에 따라 천자가 통치하는 통일된 중앙집권 국가가 영구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까닭에 중앙집권의 강력한 정부를 원했던 후대의 통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공자를 자신들의 신성한 이상으로 받들었다.

공자 사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단순한 철학이나 문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그가 민생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난 때문에 굶어서 여러 가지 비천한 일에 종사했다”고 스스로 말한 것을 보면 그 역시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利에 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단편적인 기록에만 근거하여 그가 경제나 理財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단정을 내리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그가 통치자와 관리들이 추구하는 이른바 ‘小利’에 반대하여 ‘大利’를 주장한 다음의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서둘러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마라. 서둘러면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작은 이익을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¹⁾

공자의 義利論은 우선 인간이면 누구나 부귀를 추구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나아가 국가를 관리하는 최고 통치자는 사람들의 이러한 욕망을 수용하고 또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구해도 되는 재물이라면 비록 시장의 守門이라도 나는 할 것

1) “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論語. 子路>

이다”2)

이는 곧 부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정당한 욕망이기에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정책은 백성들을 배부르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는 ‘禮’로서 ‘利’를 제약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즉 모든 인간이 부귀를 추구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치자가 규정한 ‘禮治’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이러한 ‘禮’를 ‘道’라고도 불렀는데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3)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옳은 방법이 아니라면 군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지만 옳은 방법이 아니라면 군자는 도피하지 않는다”4)

“나물 밥을 먹고 찬물을 마시고 팔을 베게 삼아 자도 즐거움은 있는 것이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과 지위는 나에게서 마치 뜯겨 뜯겨 구름과 같은 것이다”5)

“이익을 보고 정의를 생각하고 위험한 일을 당해 목숨을 바치며 오랫동안 곤궁에 빠져 있어도 평소 한 말을 잊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6)

2) “富而可求，雖執鞭之士，吾亦爲之” <論語·述而>

3) “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 <論語·里仁>

4) “富與貴，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不處也。貧與賤，是人之所惡也，不以其道得之，不去也” <論語·里仁>

5) “飯疏食，飲水，曲肱而枕之，樂亦在其中矣。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 <論語·述而>

6) “見利思義，見危授命，要不忘平生之言，亦可以爲成人矣” <論語·憲問>

“(공자는) 받아야 될 때에만 받기에 남들이 그가 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⁷⁾)

물론 여기에서 공자가 말하는 ‘義’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환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시 자신의 사회적 신분의 등급에 따라 토지와 수목 등의 자산을 관리, 경영한 후 서로 침탈하지 않고 그 신분에 어울리게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상 어떤 사회구조에도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시대의 義利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先義後利’, ‘重義輕利’, ‘見利思義’와 같은 주장은 오히려 어떤 형태의 사회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말해 주고 있다.

<중용>에서는 “義者宜也”라 하였고 <맹자>에서는 “仁, 人心也, 義, 人路也”라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종합해 보면 義란 현대적 언어로 ‘합리성’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람들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仁愛의 마음이 바깥에 들어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義의 내용이 다소 달라진다 해도 義를 통해 利를 제약한다는 상호관계는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자의 惠民論은 정치의 근본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안락하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군자는 義에 밝고 소인은 利에 밝다’(“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는 공자의 주장은 국가와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와 관리는 義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 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단지 어떻게 利를 산출하여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인가에 관해서만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국가가 惠民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통치자의 不義이며

7) “義然後取, 人不厭其取” <論語. 憲問>

不仁이라는 것이다.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그들의 원성을 사게 마련이라는 사실에서 공자는 이른바 民, 食, 喪, 祭 즉 백성들의 출산, 식량, 사망, 제사와 관련된 네가지의 기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자의 혜민사상은 동시에 지배층이 백성들로 하여금 때에 맞추어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해 주고 세금을 적게 걷고 스스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여 “近者悅, 遠者來”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다음 단락은 이러한 공자의 의리론과 혜민론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게 되고 민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먼저 덕에 신중해야 한다. 덕이 있는 곳에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는 곳에 국토가 있고 국토가 있는 곳에 재화가 있으며 재화가 있는 곳에 용도가 있다. 덕이란 근본이며 재화란 말단이다. 근본을 중시하고 말단을 경시하면 백성들과 다투게 되고 서로 빼앗는 악풍을 가르치게 된다. 따라서 (군주에게) 재화가 모여 들면 백성은 흩어지고 재화가 흩어지면 백성은 모인다”⁸⁾

“재물을 생기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다.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봉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적으며 만드는 사람이 서두르고 분배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재물은 언제나 풍족하다. 어진 군주는 재물을 균등히 분배하여 자신의 명예를 세우고 어질지 않은 군주는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여 재물을 늘인다. 윗사람이 인(仁)을 좋아하는데 아랫사람이 의(義)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아랫사람이 의를 좋아하지 않으면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부고(府庫)의 재화는 모두 군주의 소유이다. 맹헌자는 ‘마차가 있는 집에서는 닭이나 돼지 따위에 관심이 없고 장례 때에 얼음을 쓰는

8) “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 是故君子先慎乎德. 有德此有人, 有人此有土, 有土此有財, 有財此有用. 德者, 本也. 財者, 末也. 外本內末, 爭民施奪. 是故, 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

집에서는 소나 양을 기르지 않는다. 兵車 百乘을 갖춘 집에서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짜내는 가신을 두지 않는다. 그러한 가신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도둑질 하는 신하를 둘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나라는 재물을利物로 여겨서는 안되고 義를利物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⁹⁾

III. 맹자의 仁政論과 用賢사상

맹자는 철제 농구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농업 생산력이 대대적으로 향상되고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함에 따라 규모를 갖춘 도시가 자리잡아 가고 있던 시대에 살았다. 결국 戰國시대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지만 이 시대에는 제후국 사이의 다툼 특히 상공업 도시를 차지하려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춘추시대 제후들의 목표가 토지와 백성들을 수중에 넣는 것이었다면 이 시대의 탐욕스런 군주들은 막대한 상업상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정력과 시간을 바쳤다. 전쟁은 생산활동과 생산력을 파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생산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봉건 영주의 共田制는 격렬한 사회변혁 속에서 봉건 지주 가족들의 사유토지제로 전환하게 되었고, 신종 지주계급은 여러 형태의 변법을 통하여 제후국들의 정권을 장악 점차 영주계급의 지위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나라 왕실이 더 이상 共主의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되자 이른바 七雄은 전중국을 통일하는 최고 통치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각자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맹자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仁義를 제창하고 霸道가 아

9) “生財有大道，生之者衆，食之者寡，爲之者疾，用之者舒，則財恒足矣。仁者以財發身，不仁者以身發財，未有上好仁而下不好義者也，未有好義其事不從者也，未有府庫財非其財者也。孟獻子曰：畜馬乘不察於鷄豚，伐冰之家不畜牛羊，百乘之家不畜聚斂之臣。與其有聚斂之臣，寧有盜臣，此謂國不以利爲利，以義爲利也。”

닌 王道로서 중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한 유가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공자의 학설을 계승하여 성선설을 정립하였으며 공자의 禮治사상을 仁政사상으로 발전시켜 유가사상을 더욱 완전한 형태의 이론으로 만드는데 공헌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기에 仁, 義, 禮, 智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게 된 덕목이다. 즉 선한 마음은 평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본성으로서 그것을 찾고 좇는 사람에게는 유지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에게 그러한 본성이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는 그 선한 면에 있어서 커다란 차별이 있기 마련인데 사람들이 선하지 않은 까닭은 그 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을 교화하여 인간의 본성을 되찾도록 애쓴다면 사람들은 모두 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국가는 물론 천하가 태평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맹자의 경제사상 역시 이러한 성선설에 기초하여 전개되는데 국가를 성공적으로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그는 우선 私利가 아닌 公義가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하간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까닭에 국가를 잘 관리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국가가 전복되는 위험한 지경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국가를 잘 다스리는 통치자라면 마땅히 公義를 앞세워 仁政을 실행할 것을 주장한다.

“천자가 불인(不仁)하면 천하를 보전할 수 없고 제후가 불인하면 국가를 보전할 수 없다. 卿大夫가 불인하면 종묘를 보전할 수 없고 선비와 백성이 불인하면 자신의 신체를 보전할 수 없다.”¹⁰⁾

“자기 집의 어른을 존경함으로써 남들의 어른을 존경하고 자신

10) “天子不仁，不保四海，諸侯不仁，不保社稷，卿大夫不仁，不保宗廟，士庶人不仁，不保四體。”<孟子·離婁>

의 자녀를 아낌으로서 남들의 자녀를 아끼면 손바닥에서 굴리듯 천하를 다룰 수 있다”¹¹⁾

“따라서 은혜를 베풀면 세상을 보전할 수 있지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자신의 처자 마저도 보전할 수 없다”¹²⁾

여기에서 맹자는 국가를 경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仁政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맹자>에서 볼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以德服人

맹자는 천하를 얻어 다스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믿었다. 그 중 하나는 仁義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무력에 의존해 천하를 정복하려는 대국들의 처사이다. 이들은 제후들 사이에서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지만 결코 천하의 백성들의 마음을 설복하지는 못한다. 또 다른 하나는 仁義를 행함으로서 천하를 지배하는 것인데 이 때에만 비로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기꺼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에서 그는 仁政을 행하지 않는 군주를 도와 전쟁을 일삼는 무리들을 강력히 비난했다.

“땅을 위해 싸우니 죽은 자가 들을 가득 채우고 성(城)을 위해 싸우니 죽은 자가 성을 가득 채운다. 이것이 이른바 토지를 帶領하여 인육을 먹으니 죽음으로도 그 죄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은 중형을 받아야 한다”¹³⁾

11) “老吾老以及人之老，幼吾幼以及人之幼，天下可運於掌。”<孟子·梁惠王>

12) “故推恩足以保四海，不推恩無以保妻子。”<孟子·梁惠王>

13) “爭地以戰，殺人盈野，爭城以戰，殺人盈城，此所謂率土地而食人肉，罪不容於死。故善戰者服上刑”<孟子·離婁>

맹자는 무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德 즉 仁義로서 대할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不義, 不仁, 그리고 仁義에 맞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는 강력이 반대했지만 仁義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不義와 不仁의 무리들과 싸우는 것은 결코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역사상 商나라의 湯이 夏나라의 桀을 토벌한 행위와 周나라의 文王이 商나라의 紂王을 토벌한 행위를 여러 차례 찬양한 것과 당시 연나라의 재상이 왕위를 찬탈하려 하자 토벌할 것을 주장한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民爲貴(與民同樂)

춘추전국이라는 오랜 혼란기를 거치면서 일반 백성들의 역량이 점차 증대되자 통치자들은 인심의 향배를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맹자는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이와 같이 밝히고 있다.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맹자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백성을 사랑하고(愛民), 백성을 부유하게 해야 하며(富民), 백성을 교육시켜야(敎民) 한다는 것이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통치자가 그들과 기쁨을 같이 하고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점은 맹자가 제나라의 왕과 음악에 관해 이야기 한 대목에서 가장 잘 드러나 보인다. 그는 제나라 왕에게 군주가 백성의 고통에 관심을 가질 때에만 그들이 군주와 더불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고 군주만이 홀로 음악을 즐기고 수렴에 나선다면 백성들의 원한을 사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 점을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성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백성들도 군주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다. 백성의 근심을 자신의 근심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군주의 근심을 자신의 근심으로 여길

것이다. 천하의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천하의 사람들과 더불어 근심하는데도 군주가 되지 못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¹⁴⁾

백성의 생활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른바 富民論은 경제에 관한 맹자의 기본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富民정책은 앞서 살펴 본 공자의 惠民정책에서 그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맹자는 그것을 보다 실제적인 경제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양식이 물이나 불처럼 풍족하다면 백성 가운데 어질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을까?”¹⁵⁾

“경작을 잘 하고 세수를 줄여주면 백성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때에 따라 먹고 예에 따라 사용한다면 재화는 풍족하여 다 쓸 수 없다”¹⁶⁾

식량이 풍부하면 不仁한 백성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 즉 衣食에 만족하게 되면 人心도 안정이 되어 仁道가 바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의식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농사를 잘 짓고 稅收를 줄이면 백성들의 생활이 풍요롭게 될 것이고, 제 때에 먹을 수 있고 절도있게 소비한다면 나라의 재력은 무한하여 언제나 남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세가지 방법으로 맹자는 우선 때에 맞추어 농사에 힘 쓰도록 사람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성들의 일은 미루어서는 안된다”¹⁷⁾

14) “樂民之樂者，民亦樂其樂，優民之優者，民亦優其優，樂以天下，優以天下，然而不王者，未之有也”(孟子·梁惠王)

15) “菽粟如水火，而民焉有不仁乎?”<孟子·盡心>

16) “易其田疇，薄其稅斂，民可使富也。食之以時，用之以禮，財不可勝用也。”<孟子·盡心>

17) “民事不可緩”<孟子·滕文公>

“농사 일에 때를 거스르지 않으면 양식은 풍족하여 다 먹을 수 없을 정도이다. 촘촘한 그물을 큰 못에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는 풍족하여 다 먹을 수 없을 정도이다. 때를 지켜 벌목하면 목재는 풍족하여 다 쓸 수 없을 정도이다”¹⁸⁾

다음으로 그는 백성들이 이른바 恒産 즉 일정한 양의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고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다.

“백성에게는 기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일정한 도덕관념이 있기 마련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일정한 도덕관념도 없기 마련이다. 만약 일정한 도덕관념이 없게 되면 기강을 흐리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 무슨 일이라도 하게 마련이다”¹⁹⁾

흔히 恒産論이라고 불리우는 맹자의 이와 같은 독특한 경제사상은 중국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사유재산제를 옹호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세를 징수하거나 늘이거나 하는 것은 그것이 백성들에게 이로운 행위인가를 보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해 주고 원하지 않는 바를 베풀지 말라”²⁰⁾고 하면서 신흥귀족들을 포함한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성을 교육시킨다는 맹자의 견해는 그의 성선설에 근거하고 있는데 선하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는 그 본성에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

18) “不違農時，穀不可勝食也。數罟不入深池，魚鱉不可勝食也。斧斤以時入山林，木材不可勝用也。”<孟子·梁惠王>

19) “民之爲道也，有恒産者有恒心，無恒産者無恒心，苟無恒心，放辟邪侈，無不爲己。”<孟子·滕文公>

20) “所欲，與之取之，所惡，勿施爾也”<孟子·離婁>

이다.

“좋은 정치는 좋은 가르침으로 민심을 얻은 것만 못하다. 좋은 정치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며 좋은 가르침이란 백성이 좋아 하는 것이다. 좋은 정치는 백성들의 재화를 얻지만 좋은 가르침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다”²¹⁾

어떻게 善教를 할 것인가? 그에 따르면 우선 求放心 즉 仁政을 실행 하고 사람들이 善行을 하도록 가르쳐 잃어버린 선한 마음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因材施教’ 즉 사람마다 그 재능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때에 내리는 비처럼 만물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것, 품덕을 배양하는 것, 재능을 기르는 것, 의문을 풀어 주는 것, 배울 것을 남들에게 남겨 놓는 것, 이 다섯가지는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이다”²²⁾

송대의 朱熹는 이를 설명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현은 가르침을 베풀 때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 한다. 작은 재능의 소유자에게는 작은대로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는 큰대로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²³⁾

셋째, 省刑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맹자의 입장은 형벌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21) “善政不如善教之得民也。善政，民畏之。善教，民愛之。善政得民財，善教得民心。”<孟子·盡心>

22) “有如時雨化之者，有成德者，有達財者，有答問者，有私淑艾者，此五者，君子之所以教也”<孟子·盡心>

23) “聖賢施教，各因其材，小以成小，大以成大，無棄材也”<朱熹集注>

줄이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仁治를 주장했다 해서 곧 法治에 반대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는 다시 말해 仁政과 法制 양자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량한 마음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며, 법만으로는 스스로 행해질 수 없다”²⁴⁾

“윗사람이 도덕규범이 없으며 아랫사람이 법도가 없다. 조정에서는 도의를 믿지 않고 공인들은 尺度를 믿지 않는다. 군자는 義를犯하고 소인은 刑을犯한다. 이러한 나라가 존속한다는 것은 거의 드물다”²⁵⁾

법이 존재하게 되면 형벌이 다르게 마련인데 어떻게 그것을 줄여 갈 것인가? 맹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죄가 없는 선비를 죽이면 사대부들은 떠나고 죄가 없는 백성을 죽이면 선비들은 이주한다”²⁶⁾

“죄인에 대한 형벌은 본인에게만 주어져야 한다”²⁷⁾

이를 종합해 보면 우선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형벌은 본인에게만 주어져야지 그의 가족들이 연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형벌이 줄어들고 동시에 법을 준수하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사람들이 孝, 悌, 忠, 信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 가야 한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24) “徒善不足以爲政，徒法不能以自行” <孟子. 離婁>

25) “上無道揆，下無法守，朝不信道，工不信度，君子犯義，小人犯刑，國之所存者幸也。” <孟子. 離婁>

26) “無罪而殺士，則大夫可以去。無罪而戮民，則士可以徙” <孟子. 離婁>

27) “罪人不孥” <孟子. 梁惠王>

가장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범죄 행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맹자의 用賢사상은 특히 인재의 선발과 기용을 중시하여 국가의 존망이 전적으로 그것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인재를 발굴하고 기용하는 행위를 심지어 유가의 최고 덕목인 ‘仁’이라고도 불렀다.

“현인을 등용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런 나라는) 존재하려 해도 불가능하다”²⁸⁾

“어질고 재능있는 사람을 신임하지 않으면 나라는 텅 비게 된다. 예의가 없으면 상하의 질서가 어지럽게 된다. 정치가 잘못되면 국가의 재물이 부족하게 된다”²⁹⁾

그리고 군주는 인재를 존중해야 하며 또 실제로 국가 요직에 중용하여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맹자에 따르면 인재를 기용할 때에는 출신이나 연령, 원한관계 등이 아니라 오로지 재능을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예로써 舜은 농사에 종사했으며 商代의 성인들은 工匠이었고 齊桓公을 도와 대업을 완성한 管仲도 실제로는 齊桓公을 살해하려 했던 범죄자였다는 것이다.

IV. 荀子の 禮治와 富國論

전국시대 말 趙나라에서 태어났던 순자는 공자와 그의 제자 자공을 추앙하면서도 자사와 맹자는 격렬히 비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齊나라에 오래 체류하는 동안 그는 그 곳에 집결한 당대 여러 학파들의

28) “不用賢則亡，削何可得與?” <孟子. 告子>

29) “不信仁賢，則國空虛。無禮儀，則上下亂。無政事，則財用不足。” <孟子. 盡心>

저명한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법가, 묵가, 도가, 명가의 사상들을 폭넓게 흡수하여 유가사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에 반대하여 성악설을 정립하였다. 그가 말하는 惡이란 인간의 선천적 본능으로서 이 세계의 모든 분쟁은 결국 이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쟁을 막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강력한 후천적 教化 즉 禮를 통해 人性을 순화하여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절제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師法으로 교화하고 예의로 이끌어만 비로소 辭讓할 줄 알고 文理에 맞아 安治될 수 있다”³⁰⁾

그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반면 현실적으로 이를 만족시켜줄 사물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明分’(名分을 잘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많은데 물자는 적다. 물자가 적으면 반드시 다투기 마련이다”³¹⁾

“인간이 생존하는 데는 무리를 지을 수 밖에 없다. 무리를 지어 살면서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다투게 되고 어지러워져 궁핍하게 된다. 따라서 분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인간의 큰 폐해이며 분수를 지키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적인 이로움이다. 그리고 군주는 분수를 구별할 줄 아는 요체이다”³²⁾

30) “故必將有師法之化，禮儀之道，然後出於辭讓，合於文理，而歸於治。”<荀子·性惡>

31) “欲多而物寡，寡則必爭矣”<荀子·富國>

32) “人之生，不能無群，群而無分則爭，爭則亂，亂則窮矣。故無分者，人之大害也，有分

“예의의 원칙은 貴賤에 등급에 있고 長幼에 차별이 있으며 貧富 尊卑를 모두 달리 헤아린다는 것이다”³³⁾

통치자는 名分을 잘 살펴야한다는 것으로 明分이란 禮治를 실행해 옮기는 구체적인 단계임을 알 수 있는데, 순자는 이와 같이 禮治라는 말에 孔孟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禮治는 이미 국가에 의한 강제성을 띠게 되어 法治의 성질을 지니게 되는데 다음의 인용문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선비 이상은 반드시 禮樂으로 절제하고 일반 백성은 반드시 법률로서 제재한다”³⁴⁾

“나라에 예가 없으면 바르지 못하기에 예는 나라를 바로잡는 수단이다. 이는 추가 輕重을 바로 잡는 것과 같다”³⁵⁾

순자는 <富國>이라는 저술을 통해 孔孟의 義利論과 富民사상을 계승하는 외에 富國과 富民은 똑같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통치자가 富民만을 알고 富國은 돌보지 않는다면 국가를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군주가 아름답게 꾸미지 않으면 백성을 통일할 수 없고 富厚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으며 위엄이 있고 강하지 않으면 간악한 무리들을 통제할 수 없다”³⁶⁾

者, 天下之本利也. 而人君者, 所以管分之樞要也”<荀子. 富國>

33) “禮者, 貴賤有等, 長幼有差, 貧富輕重皆有稱者也”<荀子. 富國>

34) “由士以上則必以禮樂節之, 衆庶百姓則必以法數制之”<荀子. 富國>

35) “國無禮則不正, 禮之所以正國也, 譬之猶衡之於輕重也”<荀子. 王制>

36) “爲人主上者, 不美不飾之不足以一民也, 不富不厚之不足以管下也, 不威不強之不足以禁暴勝悍也”<荀子. 富國>

충분한 재력이 없는 국가는 백성들을 통치, 관리할 수 없기에 그는 富國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군주가 功을 좋아하면 나라는 가난해지고 군주가 재화를 좋아하면 나라는 가난해진다. 사대부가 많아지면 나라는 가난해지고 工商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는 가난해진다. 상거래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나라는 가난해진다. 일반 백성이 가난하면 군주도 가난해진다. 일반 백성이 부유하면 군주도 부유해진다”³⁷⁾

“토지의 크기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地利를 헤아려 백성을 기른다. 사람의 능력을 보아 일을 맡기면 백성들은 반드시 임무를 다하고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익은 백성들을 살리고 衣食이나 여러 쓰임새에 모두 적절하게 부합토록 하며 언제나 저축의 여유가 있게 하는데 이것이 相稱의 이치이다”³⁸⁾

“부국의 방법은 절약하여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저축토록하는 것이다. 禮制에 따라 절약하고 선정을 통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한다. 백성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을 때에만 나라살림에는 충분한 여유가 생긴다. 백성이 부유해지면 밭이 비옥해져 경작이 쉬워지고 소출이 백배로 늘어난다. 윗사람은 법에 따라 백성에 게서 거두어 들이며 아랫사람은 예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면 丘山처럼 여유가 생겨 아무때나 그것을 태워도 그것을 저장할 곳이 없게 된다”³⁹⁾

‘裕民以政’의 政이란 孔孟에서와 다를 바 없이 농업세수를 줄여 주고

37) “上好功則國貧，上好利財國貧，士大夫衆則國貧，工商衆則國貧，無制數度量則國貧，下貧則上貧，下富則上富” <荀子·富國>

38) “量地而立國，計利而畜民，度人力而授事。使民必勝事，事必出利，利足以生民，皆使衣食百用出入相龢，必時藏餘，謂之稱數。” <荀子·富國>

39) “足國之道，節用裕民，而善藏其馀。節用以禮，裕民以政。彼裕民故多餘，裕民則民富，民富則田肥以易，田肥以易則出實百倍。上以法取焉，而下以禮節用之。余若丘山，不時焚燒，無所藏之。” <荀子·富國>

때에 맞추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행정 조치를 통해 백성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순자는 결국 富民을 富國의 기초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공자의 惠民論은 맹자의 富民論으로 발전하여 순자의 富民富國론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 공통적인 특징은 그것이 禮治이든 仁政이든 혹은 法治的 요소가 추가되었든 모두 '見利思義'의 정신에 따라 '義'로서 '利'를 제약한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유가의 최고덕목 仁은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 禮라는 형식을 빌어 義를 실천에 옮길 때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맹순의 기본적인 논의에 근거하여 선진유가의 핵심 경제관 리사상을 종합하며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V. 선진유가의 사회관리사상

첫째, 선진유가의 사상가들은 예외없이 사회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과 혼란은 기본적으로 모두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 관리의 목적은 언제나 안정되고 화목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있었으며 그것은 특히 人性을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라는 주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들도 결코 국가의 법이나 형벌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우려했던 바는 그것만으로는 안정된 사회를 제대로 건설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인성의 선악에 관해서는 커다란 의견의 차이를 보였지만, 강제적인 법의 집행을 통해 사람들을 제압하기 보다는 仁義禮信등과 같은 덕목의 배양을 통하여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믿었다. 이로부터 사람들의 기본적인 衣食이 해결되고 나면 교육을 통해 인의

도덕을 배양하여 안정된 사회질서를 구축한다는 믿음과 전통이 생겨났다. 그것은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 착한 마음을 기른다는 ‘修身’에서 비롯되는데 순자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믿었다.

“왕족이나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일반 백성이 되고 만다. 일반 백성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쌓고 몸을 바로 하며 예의에 따라 행하면 卿相大夫가 된다”⁴⁰⁾

둘째,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유가의 사상가들은 전통적으로 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자 이전의 여러 사료에서도 보이는데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땅 즉 재물을 생각한다. 군자는 나라의 법도를 생각하지만 소인은 특혜를 생각한다”⁴¹⁾

“공인들은 공장에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지만 군자는 학습을 통해 그 이치를 깨닫는다”⁴²⁾

맹자 역시 農家 許行의 제자인 陳良과 陳相과의 대화에서 분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관리자와 생산 노동자의 분리는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만약 관리자 스스로가 기술적인 육체 노동에 종사한다면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40) “雖王公士大夫之子孫也，不能屬於禮儀，則歸之於庶人。雖庶人之子孫也，積文學，正身行，能屬於禮儀，則歸之卿相大夫” <荀子. 王制>

41) “君子懷德，小人懷土。君子懷刑，小人懷惠” <論語. 里仁>

42) “百工居肆以成其事，君子學以致其道” <論語. 子張>

“그렇다면 국가를 관리하는 일이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일인가? 관리의 일이 따로 있으며 일반 백성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다. 사람이란 모든 생산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는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이는 정신 노동을 하고 어떤 이는 육체 노동을 하는데 정신 노동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육체 노동자는 다스림을 받는다. 육체 노동자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정신 노동자는 다른 사람에 의존하여 살아 가는데 이것이 천하의 공동 원칙이다’라고 말한다”⁴³⁾

이 단락의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 많은 사람들은 무위도식하는 지배층에 대한 변론이 담겨져 있다는 이유로 맹자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맹자의 논변의 취지는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명확히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유가 사상은 사회 안정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집단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층의 사람들은 조화롭고 관대한 태도를 갖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급하고 돌발적인 태도나 금품에 의존해 사람을 다스리는 것 보다 성실하고 공정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실수를 범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친 후 남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방적인 처벌보다 더 위력이 크고 이때에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것인데 <순자>의 다음 단락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가 때에 따라 공을 세우려면 백성들을 마구 부리기 보다는 조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을 주기 보

43) “然則治天下，獨可耕且爲與？有大人之事，有小事之事，且一人之身而百工之所爲備，必自爲而後用之，是率天下而路也。故曰：或勞心或勞力，勞心者治人，勞力者治於人，治於人者食人，治人者食於人，天下之通義也。”<孟子，滕文公>

다는 공정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반드시 자신을 바로 잡은 후 천천히 남들의 책임을 닦하면 이는 어떠한 형벌보다 더 위력이 있는데 이 세가지 품덕을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다면 아랫사람들은 그림자 처럼 호응할 것이다”⁴⁴⁾

VI. 선진유가의 인사관리사상

인사관리에 있어 이른바 ‘選賢舉能’은 유가의 일관된 주장인데, 그 주된 내용은 어떻게 인재를 선발하여 기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첫째, 어떻게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 제자 仲弓이 공자에게 어떻게 政事에 종사할 것인가 하고 묻자 공자는 우선 아랫사람들의 사소한 잘못은 나무라지 말고 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재를 선발할 때에는 ‘不以言舉人, 不以人廢言’ 즉 사람의 말만을 믿어서는 안되며 또 사람을 중오한 나머지 그의 바람직한 건의까지 물리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맹자와 순자 모두 인덕과 재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인사관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맹자는 ‘不信仁賢則國空虛’라고 했고 순자도 군주와 농부의 차이를 논하면서 군주의 임무는 인재를 선발하여 관리하는 것이고 농부의 임무는 단순히 자신의 논밭을 잘 일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주가 농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만 온 힘을 쏟는다면 국가의 관리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論德使能’은 ‘聖王之道’라는 가르침은 유가학설 가운데 중요한 신념의 하나가 되었다. 맹자는 또 군주가 인재를 선발할 때에는 가까운 측근의 조언만을 들어서는 안되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동시에 살펴야 한다고 역

44) “故君國長民者，欲趨時遂功，則和調累解，速乎急疾，忠信均辨，說乎賞慶矣。必先修正其在者，然後徐責其在人者，威乎刑罰。三德者誠乎上，則下應之如景響。”〈荀子·富國〉

실하였다.

둘째, 인재를 임용할 때는 반드시 그 능력에 상당하는 직위를 주고 또 이미 임용한 이상 충분히 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순자는 누구라도 직위는 높고 임무는 막중한데 능력이 부족하다면 결국 좌절하고 말 것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덕을 쌓아 자신의 지위를 지켜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충직한 신하는 진실로 능력이 있을 때에만 직위를 받기에 일을 해도 막힘이 없다. 군주의 판별력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신하된 자의 능력이 막힘이 없으면 治道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⁴⁵⁾

맹자 역시 군주가 자신이 임용한 관리들을 충분히 신임할 때에만 관리들도 비로소 군주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주가 관리들을 대하는 바로 그 태도로 관리도 군주를 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군주가 신하를 손발로 여기면 신하는 군주를 가슴과 마음으로 여긴다. 군주가 신하를 개나 말로 여기면 신하는 군주를 일반 백성으로 여긴다. 군주가 신하를 잡초로 여기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로 여긴다.”⁴⁶⁾

셋째, 인재를 기용한 후에는 실제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여러 조건하에서의 성과를 판단하여 참고로

45) “故明主橘德而序位，所以爲不亂也，忠臣誠能然後敢受職，所以爲不窮也。分不亂於上，能不窮於下，治辯之極也” <荀子·儒效>

46) “君之視臣如手足，則臣視君如腹心。君之視臣如犬馬，則臣視君如國人。君之視臣如土芥，則臣視君如寇仇” <孟子·離婁>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 순자는 이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사람을 기용할 때에는 예에 따라 시험하고 사람을 부릴 때에는 등급에 따라 제한한다. 모든 행동과 움직임은 예에 따라 살피고 성과에 따라 평가하며 오랜 기간을 통해 공적을 살핀다. 따라서 비천한 자를 존귀한 지위에 오르지 않게 하고 경솔한 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주지 않고 우매한 자로부터 지략을 얻지 않으면 모든 일에 착오가 생기지 않는다”⁴⁷⁾

그 외에도 순자는 또 여러 측면에서 인재를 시험해 볼 것을 권장하는데 순조로울 때恭敬한 태도를 지니는가, 불안한 환경에서 임기응변의 능력이 있는가, 안락한 환경에서 여러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재를 발굴해 낼 때 참된 인재를 추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하고 인재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VII. 결 어

1949년 건국이래 현대 중국 경제는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 발전해 왔다. 그리고 제11기 三中全會 노선에 따라 1979년 이래 지금까지 중국은 이른바 ‘改革, 開放, 搞活’이라는 구호 아래 새로운 국면을 맞아 현대화를 위한 도약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개방이래 중국의 정계, 경제계, 학계 등의 각계 인사들은 서양의 여러 선진국들을 방문하여 경제발전 현황을 실지 체험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47) “取人之道，參之以禮。用人之法，禁之以等，行義動靜，度之以禮，知慮取舍，稽之以成，日月積久，校之以功。故卑不得以臨尊，輕不得以縣重，愚不得以謀和，是以萬舉不過也” <荀子·君道>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以我爲主，博採衆長，融合提煉，自成一家’라는 기본 방침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⁴⁸⁾

첫째, 사상적으로 어떠한 속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중국의 경제 개혁 움직임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는데 과거 그러한 경험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대변혁기에 대담하게 모든 사상을 검토하여 올바른 개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좋은 예로 백가쟁명의 선진시대를 돌이켜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 선진시대의 문화가 중국 문화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의 개혁, 개방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三中全會의 實事求是 노선하에 4항목의 現代化 원칙을 건지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 검토했기 때문이다. 지난 50년대의 ‘大躍進運動’은 잘못된 목표 설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모택동이 제시한 ‘敢想，敢說，敢干’의 정신만은 모든 사상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공자의 시대에서 손문의 시대에 이르기 까지 귀중한 문화 유산으로부터 오늘날 중국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내야 한다. 현재는 과거의 연속으로 존재할 뿐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목적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얻어진 선인들의 실천적 경험을 되살려 현실에 이용하고 그 유산을 후대에 물려 주는데 있을 뿐이다.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1984년 中國國家經委經濟官理研究所는 中國古代管理思想討論會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선진유가를 포함하여 경제, 관리 분야와 관련이 있는 고대 중국사상이 총망라되어 검토되었다

48) <中國傳統管理思想的新探索> 中國企協古代管理思想研究會 編，企業管理出版社，1988, 3쪽 참조

셋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선진 외국의 우수한 문화 전통이나 기술은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는 결코 宗派主義가 아니다. 선진 외국의 풍부한 경험이나 기술은 아무 조건없이 받아들여 중국 현실에 맞추어 활용해야 한다. 중국 역사상 가장 강성했고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漢왕조와 唐왕조는 바로 그리이스, 로마 등 외국 문화의 정수를 가장 폭넓게 접했던 시대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방정책을 실행했던 당왕조 때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교향악단에서 사용되던 악기의 상당수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은 대체로 이와 같은 기본 방침하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등소평을 위시한 중국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5,60년 대의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은 그 목표를 단시일 내에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경제대국이 아니라, '小康' 즉 대다수 중국인들이 수천년간의 험벗고 굶주림에서 벗어나 금세기 말까지는 우선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유지한다는 데 두었다. 이렇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들은 적시에 대외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하여 화교를 주축으로 하는 해외 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덧붙여 중국인의 오랜 민족적 전통인 근면성과 인내심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 역시 경제성장을 앞당기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음은 부인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인 외에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로서 유가사상은 경제건설을 포함한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어떤 요소로 작용해 왔는가? 앞에서 살펴 본대로 유가는 인간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仁, 義, 禮, 信, 忠, 孝 등과 같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줄 수 있는 여러 덕목들을 중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흔히 일상적인 언어로 '仁'이라는 덕목

과 함께 '仁義'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 '先義後利'의 정신은 초기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해외 화교들이 우선 교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이윤 추구를 위해 중국 대륙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적 소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성공한 기업인 가운데 공익 사업 등을 통해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儒商'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유가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 문서상의 형식적인 계약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신용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 엄격한 규정의 준수 보다는 대화를 통한 절제나 양보 정신을 통하여 노사간의 화합과 종업원 상호간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역시 유가적인 전통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楊伯峻 譯註. 1982. <論語譯註>. 臺灣. 源流出版社
// <孟子譯註> //
- 王忠林 註譯. 1980. <荀子讀本> 臺灣. 三民書局
- 謝冰瑩 編譯. 1980. <四書讀本> //
- 馮宗容 主編. 1994. <中國近現代經濟熱點及重大事件>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 李秀林 主編. 1989. <中國現代化之哲學探討> 北京. 人民出版社
- 梁 鷹 編. 1996. <中國能養活自己嗎>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 孔 健 著. 1995. <孔子的經營之道>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 中國企協古代管理思想研究會 編. 1988. <中國傳統管理思想的新探索> 北京. 企業管理出版社